

도농상생을 위한 1사1촌 운동의 전개 방향



최 동 주 사무총장
전국농업기술자협회

『 I. 서언

본 원고는 2004년 농림부의 연구용역과제인 『1사1촌 운동을 통한 농촌활성화 방안 연구』의 결론 부분을 수정 요약한 것임.

II. 1사1촌을 운동을 통한 도농상생방안

1. 마을주민의 요구와 대응 방안

○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촌주민들은 대체로 1사1촌 운동에 만족하고 있으며, 가장 원하는 활동이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마을 주민의 소득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우리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기업에서의 농산물 수요확대와 농촌에서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기업의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험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할 것임

○ 또 하나는 일반 농산물일 경우 직거래 구매가격이 소비자 구매가격보다 낮고 주민들의 기존의 관행적인 출하가격보다 약간 높게 이루어지도록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자매결연 마을의 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회사원들의 농산물 구매행태를 파악하고 원하는 농산물의 종류 및 수요량에 맞게 작목 및 친환경 농법으로 전환을 통해 사원들의 직거래를 촉진하도록 하여야함

○ 농촌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보다는 지속적 교류를 원하고 있음. 따라서 전시성 행사의 일환으로, 또는 공공부문의 권유에 못 이겨서 참여하는 회사는 1사1촌 운동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교류활동의 내용을 수정하여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형식적인 행사

를 탈피하도록 함

2. 기업의 요구와 대응방안

-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1사1촌 활동에 대한 비용이 적게 들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원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 내의 마을과 기업이 교류를 할 수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임. 지역민에 대한 이해와 기업의 이미지가 맞는 유형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해야 함
- 1사1촌 운동이 짐이 되지 않도록 전개해 나가는 점이 중요함. 정부 및 공공단체의 강력한 권유로 의사와 무관하게 추진되었을 경우 지속적으로 추진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기업의 이익과 직원들의 복지 후생증진에 기여하여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및 기반구축 방안을 강구하여 실천하도록 함.
- 사원들의 생활 및 여가패턴을 조사하여 마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되어야 함. 사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봉사활동이나. 회사의 방침에 따른다는 생각을 갖고 참여할 때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교류가 추진되기 어려움. 따라서 기업은 사원의 요구를 정밀하게 조사하여 대응할 때 진정으로 사원을 위한 복지활동, 재생산을 위한 여가휴양 활동으로서 1사1촌 교류가 이루어지게 됨

3. 1사1촌 운동을 통한 도시와 농촌의 활성화 방안

- 1사1촌 운동에 있어서 업종별 마을과 주요연계

방안을 찾아 도농상생의 교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지속적인 교류의 핵심이 되고 있음.

- 단순한 행사차원의 1회성 방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끈근한 관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년 6~10회 정도 지속적으로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월별 프로그램을 공동개발 하고 공동 운영하는 단계로의 발전이 요구됨.
- 1사1촌 운동의 단계별 (Visitot→Repeater→Supporter→Settler)운영 전략에 있어서 마을과 기업에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예시를 들어 기업측면에서는 마을이 필요로 하는 사업 위주로 쉽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접근 할 수 있음.
- 회사 종사원들의 보상, 회사의 행사, 해외고객 서비스, 기업 이미지 향상을 1사1촌과 연계하고, 단계별 기업투자시설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 하였음. 특히 기업구내 직거래 장터 개설, 체재형 주말농장 등은 향후 직원 복지와 연계하여 확대 가능한 사업으로 생각되며, 향후 고령시대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그린팜, 은퇴농장, 시니어 콤플렉스, 전원기업마을 등도 좋은 아이টে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 1사1촌 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임직원과 그들의 가족들이 만족할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며 이러한 것들은 다른 마을의 체험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각자 마을의 특성에 맞게 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결국 이러한 프로그램과 연계된 그린투어 상품권의 개발과 기업 이미지의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농촌 마을 주민들은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긍심과 만족도를 높이면서 기업측은 관계자들의 복지, 여가, 이미지 향상 등을 통해 새로운 도농상생의 기업문화와 사회공헌을 하는 기업 홍보에 역점을 두도록 함.



III. 1사1촌운동의 향후 전개 방향

1. 다사다촌의 형태로 확대 발전

- 지금 회사와 마을 간의 자매결연이 1사1촌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영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움... 회사의 사원들도 계속 한 곳에만 가게 되면 싫증이 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사업적 일로 생각하게 되면 보람보다는 의무감에 치우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다양한 마을과 자매결연을 통하여 사원들의 취향에 따라 마을을 선택하게하고 수시로 마을을 바꿔가면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대기업과 1개 마을과의 자매결연은 현실적으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실천 가능성이 없으므로 부서별, 혹은 취미그룹별로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어 사람과 사람간의 마음의 교류로 진정한 1사1촌운동이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함.
- 또 마을의 입장에서도 같은 회사의 사람들만 교류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회사와 교류를 하게 되면 필요시 각 회사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2. 1사1촌 운동 우수회사와 마을에 대한 보상 강화

- 1사1촌 운동을 효과적으로 활발히 전개하여 상생의 문화를 창출하는데 기여한 회사와 마을에 대해서는 제도적, 경제적, 문화적 보상을 실시하도록 함. 보상방안으로는 시상제, 세계혜택확대, 생활기반정비 지원 등 다양한 정부의 농촌활성화 사업 선정시 가점을 주는 것도 고려해야 함.

3. 정부의 1사1촌 활동의 지원정책 수립

- 정부에서는 정부의 각 기관에 실질적으로 마

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 자매결연을 추진하되 행사위주가 아니라 인적교류, 물적교류, 그리고 마음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농촌체험의 날을 제정하고 회사와 정부부처가 함께 마을을 방문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전개하도록 함. 정부 각 부처에서도 기관홈페이지와 마을 홈페이지와 연계하도록 구성하고 상시적으로 교류활동 하도록 지원하도록 함

4. 1사1촌 운동을 전 국민의 생활문화운동으로 정착

- 1사1촌운동 확산에 모범적인 기업과 마을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동참하게 하여 하나의 문화운동으로 전개하는데 정부, 공공단체, 민간단체들도 참여하도록 문을 개방하도록 함
- 회사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기업에서 러시아의 다차를 벤치마킹한 체재형 주말농장 등도 개발하여 직원들에게 분양하여 향후 농촌이 복합정주공간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며, 5도 2촌시대의 새로운 사회문화운동으로 정착하도록 각종 규제완화와 세금감면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해야 함.

5. 1사1촌 운동을 쌍방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전개

- 회사가 마을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오래도록 유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원

들도 의무감이나, 농촌봉사의 개념으로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결국은 회사의 행사에 급급하게 됨

- 마을입장에서도 도시민의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마을에서 생산 되는 친환경 먹거리를 도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자부심을 느껴야 함.
- 이렇게 하여 도농이 대등한 관계가 형성하고 상호 교류하여 상생의 효과를 전개하도록 하여야 함. 그리하여 기업측에서는 농촌에 대한 측은한 마음 혹은 시혜심을 버려야 하며 마을 주민들도 당당하게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농민으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하도록 함

6. 마을개발에 기업, 정부, 주민이 공동참여 유도

- 마을개발에서도 기업과 정부가 공동참여하도록 제도화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함. 마을과 기업이 함께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정부가 지원을 통하여 활성화 하도록 지원을 하는 것임
- 단계별 사례
 - Visitor 단계 : 홈페이지 구축, 마을 직거래 시설물
 - Repeater 단계 : 당일형 주말농장 , 기업구내 농산물 직판장 등
 - Supporter 단계 : 체재형 주말농장, 그린팜(여가, 체험, 세미나, 스포츠 시설 등)
 - Settler 단계 : 시니어 콤플렉스, 전원기업마을 조성 등